

영·간·영·화

'77 8월호

영아부 제절학교 때의 한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난국에 처한 성도의 자세

(성경 / 딤후 1 : 7, 8)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오늘에 이르
기까지 할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상하게 미국은 선
한 사마리아인에서 제사장처럼 레위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대
한민국의 정세는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여전히 전쟁재발의 위기가
도사되고.....

**첫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
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의 이름을 회방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사 하나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조금
도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은 열려하는 사
울왕의 말에 이길 자신이 있노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럼 이런 다윗의
담대함과 승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능력의 하나
님을 굳게 믿는 데서 담대한 마음의 무장을 할 수 있
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교
만하다가 골리앗처럼 거꾸러질 때가 옵니다. 남을 의
지하는 사람도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믿고 의지하던
사람 때문에 가슴치며 눈물흘릴 때가 오고 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가지면
비록 미군이 철수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북쪽의 김일
성이 전쟁준비에 광분해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
랑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
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이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평생 하나님
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사랑을 받고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사랑을 요구하고 내
편에서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맘을 흘리는 노
력과 눈물과 기름을 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처참한 6·25를 겪으며 대한민국이 차유와 재
산과 생명의 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상하게 미국
은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제사장처럼 레위사람처럼 되
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세는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여전히 전쟁재발의 위기가 도사되고, 여론과 군사전문
가의 경고도 무시한 채 주한미지상군을 철수하려고 합
니다. 이런 처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웃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지 의심스
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염려스럽습니다.
사랑과 의무를 저버리는 태도를, 세계 자유진영의 지
도자로서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미국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라와 교회를 위하여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세계선교를 담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째로, 범사에 조심하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입니
다.**

나 자신이 아무리 실력이 갖춰져 있어도 조심하지 않
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또, 조
심하는 성도는 준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시간
예수님 재림하셔도 마중나갈 기쁨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가슴에 손을 들이대며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해도 「형제여!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전도할 준비했
습니까? 내 생명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보고할 준비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이여! 성도들이여! 미군이 언제까
지 우리를 지켜 주려니 생각하지 마시다. 범사에 조
심하는 가운데 마음의 무장, 무기의 무장과 아울러 기
도로 준비함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네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생을 각오합
시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고생중에 마지막 고생
이 십자가입니다. 역울한 일중 마지막 역울한 일이 십
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역울함을
당해도 좋다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땅 위의 하루가 짧으면 하늘나라의 하루가 길어집니
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잠을 잤습니다. 영적으로 켈 때
가 되었습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자손들에게 복의 기
관을 물려줘야겠습니다.

이같은 마음이집만 가질 수 있다면 반드시 장래에
영광스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
복이 우리나라와 우리 겨레 위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면판계로 긴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편집자 불임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8월의 행사

- 1-4일/유치부·유년부 제24회 계절학교, 유치부 학부모교육
- 2일/정기당회
- 2-5일/초등부수양회
- 7일/정기제직회·제정위원회
- 8-12일/농어촌전도대 파송
- 9-11일/당회원수양회
- 10-11일/영아부계절학교
- 14일/지도자양성부 제12기 개강, 남전도회월례회, 권사회월례회, 산업전도회월례회, 월간증언 8월호 발행
- 15일/남전도회야외예배
- 18-20일/제일성가대수양회
- 20일/전도대평가회
- 21일/여전도회월례회
- 22일/교육위원회
- 22-23일/노년부하기수양회
- 23일/지회자·반주자 교육
- 28일/구역권찰회

8월호 차례

- <말씀> 난국에 처한 성도의 자세 / 김창인 목사...2
- <편집실에서>4
- <이렇게 담한다>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 백성룡 목사...5
- <특집 I> 라담회-교회와 학생들에게 바란다 / 고재원·장병기·김보일·박찬섭 위운성·김경희·김철영6
- <특집 II> 8.15와 한국교회 / 김차생 집사10
- <직분론④> 직분자의 기본적 교회관 / 정상우 목사...12
- <이단종교⑦> 전도관/윤형철 전도사13
- <찬송가해설> 나의 사랑하는 책14
- <1200자칼럼> 그런데 할렐루야! / 김인숙14
- <책소개> 우리 다시 만날 때, 지금은 몰라도15
- <도서정보>15
- <신앙간증> 나는 공산당의 앞잡이었다16
- <해외선교소식>17
- <청년신앙수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 김경생...18
- <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19
- <수필칼럼②> 예수 몰랐다면 / 노문환19
- <예배자료> 시편에서 즐기는 주간의 만나20
- <구역장노우트⑨> 신앙지도의 지침(11) / 백성룡 목사...21
- <구역소식>21
- <교회뉴스>22
- <이탈에 만난 사람②> 임현덕 장로/편집부...25
- <기자석·표지설명>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 <실로암 못가에서> 일상생활의 기도28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월간 증언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 (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이제 여름이 끝나 갑니다

■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습니다. 한차례 잠시 스쳐간 듯한 장마는 우리에게 크게 기억할 만한 손해를 주고 물러가기도 합니다. 미군 철수의 소용돌이가 마음을 설레이기도 합니다. 또한 8.15를 기해 여의도에서는 77 민족대성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재해와 불안과 무더위의 소용돌이 속에서 금년 여름은 시작하고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외침 속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 3회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으로 여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7월 6일에는 제 3회 군중사병훈련, 제 6회 농어촌 지도자 초청훈련, 또한 7월 18일 청년부 대학부 수양회를 시작으로 각 주일학교의 여름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사지만, 매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는 매년 더해가는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곤 합니다.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늘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훨씬 넘어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운 열기지만,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는 무더위지만, 우리 내면에서 주님을 갈구하는 바램은 이 열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파송전도를 정점으로 장로수양회, 성가부수양회가 잇달아 있고 노년부수양회를 마치 막으로 모든 여름행사가 끝나게 되는 금년 여름행사는 예산이 800여만원에 3,000여명의 인원 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금 기간동안 받았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집중적인 신앙훈련과 또 한 단계의 신앙적인 도약을 위하여 실시되는 여름행사에서 과연 우리는 남은 날들을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만남을 가졌는가? 또 가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도자나 교사나 피교육자나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열려해야 할 일입니다. 단지 수양회나 특별한 기회에만 자신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한 수양회·행사를 치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자·교사·피교육자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손을 꼭 잡고 다시 그 여름, 무더웠던 며칠간, 하나님을 바라던 열기가 온 주위를 휩쓸던 그 수양회 현장을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진 며칠간이라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취미와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의 초점(focus)을 그리스도에게로 맞출 수 있었던 때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삶 그 자체에서 나타나고 실행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이기에 우리는 다시 그 수양회의 열기를 오늘에서 찾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갑니다. 그러나 그 여름에 얻었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여름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 교회와 학생들에게 바란다/지난달의 학생들의 좌담회에 이어 이달에는 교사들의 좌담으로 학생들의 질문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또한 교회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를 맘껏한 학생들의 이야기의 허실(虛實)과 또한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변(辨)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먼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장기투자효과를 노리는 것이며, 이 또한 어느 특정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두고 두고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화담회 시리지는 어느 해결을 찾는 것보다는 먼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차 대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의 접근점을 찾자는 의도입니다.

충분한 이해 가운데 깊은 관심과 격려로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나는 공산당의 앞잡이었다/홍콩에 주재하는 홍콩만 목사님이 귀한 원고를 보내 주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주님을 영접한 간호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홍콩목사님은 앞으로 계속 이와같은 원고를 보내 주어 우리의 신앙상태에 긴장감을 더해 줄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백 성 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찬회장>

저는 어느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의 딱 한 형편을 보고 헌금할 것을 「마음으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본교회 새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려다가 문득 그 교회에 작정한 헌금이 생각나면서, 먼저 작정한 곳에 보내지 않고 또 작정할 수 있을까? 본교회 건축헌금을 먼저하고 교회를 위로 미루어야 하나? 아니면 구두(口頭)로나 문서(文書)로 작정한 것은 아니나 그대로 지나도 되는 안되겠지? 이런 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 헌금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월간중헌 작년 8월호것을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위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린도후서 8,9장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 즉 헌신자가 바치는 정성이어야 합니다. “헌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고후 8:3) 드리는 것이 바로 정성이된 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은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 원리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표현형식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구약시대의 헌금은 이스라엘나라의 법령과 제도에 따른 다분히 강제성이 있었던 것에 비해, 신약시대의 헌금은 은혜받은 대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헌금은 아무 계획 없이 하는게 아니라, 미리 준비했다가 하는 것이어야 참 연보답다(고후 9:5)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헌금할 때에 미리 알려주고 연보하게 하며, 연초에 공동체교회에서 일년 예산이 통과되면 본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헌금해야 할 것인지 각자가 준비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한 중헌교회는 큰 만큼 교회의 사명역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는 대로, 새성전건축이라는 큰 일을 앞에 놓고 계속 힘써야 할 국내외의 전도사업과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어디에 가서 할부로 헌금을 작정할 수 없게 됩니다. 헌금이 섬기는 교회를 중심해서 바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개인의 의사보다 공회가 의도하는 바를 더 존중하여서는 것이 교인이 취할 정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강동하심을 따라 신앙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나 혹은 다른 교회나 어느 기독교기관에 헌금하는 일도 해야 될 일이라는 하지만 그것이 즉흥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지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일시적인 흥분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백 성 룡 목사

그러므로 내 마음에 정한 것은 필연코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음에 정한 바를 실천하지 못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것이면 힘에 벅차도 꼭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 마더 덧붙여서 기도하는 사람치고 서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꼭 갚을 것을 생각지 않고 서원하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작정하는 일이 일종의 서원이 되었을 때는 꼭 갚기를 힘써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정으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조용히 담당교역자를 찾아가 지도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레 27:8). 모름지기 성도는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신앙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으면, 어떤 방도로 헌금을 하든지 상관할 바가 없었습니다.

교회와 학생들에게 바란다

- ☐...기독교 교육은 가정이나 일반 학교에서보다는 교회가 전적으로 위임...☐
- ☐...받은 사업이란 것이 현대 기독교 교육의 동향이다. 그 교육의 주체...☐
- ☐...가 교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사의 위치와 책임이 자못 중요하다...☐
-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학교에서는 지식전달의 교육만 말고...☐
- ☐...인간교육은 거의 교회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동향과 현...☐
- ☐...실에서 교사의 집이 매우 무거운 것 같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하...☐
- ☐...는데 있어서 애로점과 학생들과의 쌓여진 벽을 열고 교회의 정책도...☐
-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생들과 교회에 바란다」의 좌담회를 마...☐
- ☐...련해 보았다. 상호 이해와 협조로, 주일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때: 1977년 7월 17일 오후 4시

곳: 「월간충천」 편집실

참석자: 김보일(대학부 교사)

위은성(대학부 교사)

김경희(중등부 교사)

장병기(중등부 교사)

김철영(유년부 교사)

박찬섭(유치부 교사)

사회: 고재원(월간충천 기자)

사회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주교·교육에 바란다」의 메아리 중 두번째 좌담회로 주교 교육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회와 학생에게 바란다」의 주제로 평소 갖고 계시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주교 교육의 성패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교사님들에게 있어서 또한 불평의 화살이 빗발치는 현실에서 일선 교육에서의 애로점을 이 시간을 빌어 털어 놓으시고 공동과제를 연구하여 보다는 주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바란다」의 내용으로 지난 달 학생초청좌담회에서 지적된 교사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포용성과 교육이 지식전달에 그쳤지 생활과 연결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찬섭: 좌담회 기사를 읽고 교사의 한 사람으로 뜨끔했어요. 좀 지나친 표현도 있구요. 포용력과 지식전달의 문제는 교육의 공동문제인 듯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와같은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한 시간의 할애가 있어야 해요.

학생들의 소극적 자세

김경희: 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인 듯합니다. 교사가 꼭 먹여 주는 것만 먹으려 하

지 자진해서 먹으려 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불평을 하고 있지요.

위은성: 저 역시 동감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대화 중심의 대학부 교육에서 학생들은 미리 생각은 해 오지 않고 즉석에서 생각하려는 태도와 교재까지 안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성경책까지 안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토의를



(김 경 희)

원하면서도 자신들의 준비 부족과 무관심으로 올바른 대화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깐요.

김경희: 학생들의 지적인 좌(개인차)가 너무 심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할지 매우 어렵습니다.

심방·기도등 사랑을 갖고

장병기: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포용성의 문제는 교학년일수록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상호 이해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이해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심방을 잔다든지 관심을 갖고 거도를 한다든지 하여 학생들에 대해 사랑을 갖고 교육에 임하면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찬섭: 주교 I 부에 있어서 포용성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방뿐 아니라 교사·학생·학부형의 상호 협조와 관심이 있어야 포용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형들의 관심있는 협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시간의 부족은 어느 부에서나 공통적으로 접하는 문제이나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교사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싶군요. 소극적인 자세를 적극적인 참여로 유도시키는 것이 교사의 임무가 아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학부나 고등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 재 원)

대화를 통해 벽을 헐어야

위은성 : 결국 이러한 껍을 배우려면 역시 포용성 있는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데 교사와 학생간의 연령차가 적으니 오히려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포용하기가 어려워지며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실제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을 내어 자주 대화를 가지면 벽이 무너지리라 생각해요.

교사에게만 의존하려는 학생들

김경희 : 하나에서 열까지 학생들은 구체적인 답변까지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수학문제도 원칙적인 것만 철저하게 가르치고 예제 몇개만 가르치면 어떤 응용문제도 능히 풀어 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원칙적인 공부를 배우고 그 원칙 아래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정신적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능히 적용해 나갈 수 있는데 너무 교사들에게 의존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자기의 것인데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해요.

박찬섭 : 스스로 대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성급히 그것을 요구하는, 혹은 질문은 하지 않고 해답을 해주기 바라는 경향이요.

김경희 : 질문은 남과 나의 시간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그 해답자는 교사만이 해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성경 자체도 해답자가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전혀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용력이 너무 적어요.

주님과 만남의 체험 없으니 계속 문제가

김보일 : 모든 문제는 근본적인 것만 해결하면 지엽적인 문제는 해결될 줄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리스도는 너무 많이 가르쳐 주었지만 그리스도와 만남의 체험이 없으니 지엽적인 문제가 계속 따라 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주초문제나 주일문제도 마찬가지이지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주 지엽적인 것을 생각하여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교사의 자질문제도 교사 자신이 그리스도와 만남의 체험이 있다면 교사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체로 흔들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문제해결도 짧은 시간에 많이 해결되지요. 그러나 교회가 커서 시간적인 부족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지



◇「교회와 학생들에게 바란다」좌담회 모습.

식면에서는 학생들은 너무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요. 오히려 지식이 축적이 되어 피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과 만남의 체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주님과 만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험이 없으니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

김철영 : 교사가 말씀뿐만 아니라 실천수범하여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6월 전도의 달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의 에 나머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학생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자 :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이해하고 친밀감을 가질 때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교사의 자질에 달려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포용력 있는 교사가 유능한 것은 아니다

김경희 : 교사의 자질문제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학생들의 용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싶군요. 유능한 교사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사이지 꼭 포용력이 있는 교사가 유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부자하지도 않고 받으려 하는 외면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는 줄려고 하는 교사에 대한 거부반응에 지나지 않아요.

박찬섭 : 용기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가 아니겠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철영)

“학생들은 자주 구체적인 것만 원하는데, 수학문제도 원칙적인 것만 가르치고 예제 몇개만 해주면 응용문제도 능히 푸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위 은 성)

배짱과 용기가 있는 학생이었으면

위은성 :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처럼 참여 의식을 갖고 많이 듣고 배우라고 얘기하고 싶군요. 근본은 말씀이니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고 나면 천목도 도모할 수 있고 서로가 이해 할 수 있지요. 그러려면 먼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각종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김보일 : 초대교회처럼 피기를 원하고 싶군요. 우리 성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vision)을 바라보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키워 나가라는 말입니다. 배짱과 용기가 있는 학생이 되라고 부탁하고 싶군요.

김경희 : 매우 동감입니다. 배짱과 용기, 저는 말을 바빠 담력과 용단을 가지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학생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나의 문제는 내 스스로 말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태도와 교사의 경험을 배우려 하지 말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투자한 만큼 얻으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부모의 참여 없이 교육 못해

박찬설 : 우리 주교 [부는 학부형에게 바라다로 말씀을 드려야 했어요. 학생(자녀)들의 문제점을 교사에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취미 특기 성격 등을 교사에게 알려주면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을텐데 현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특히 자녀들의 생활교육에 관심을 두셔서 가정에서 부모만이 교사가 아니라 교회의 교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교육에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영 : 자녀들을 위해 신앙적으로 기도로 교육시켜야 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같아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시가 되어 매우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교육은 부모의 협조 없이는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주교 교사를 너무 소홀히 취급

장병기 : 학부형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성수주일 문제인데 너무 부모님들이 무관심하시고 특히 믿는 가정집에서는 교회 제직들 가정에서까지 성수주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수주일 문제는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자라셔도 흔들리지 않을텐데 가정에서 교육의 부족과 무관심으로 문제가 생기게 하는 이지요. 아울러 몇

니다.

김철영 : 시간을 선용하여 시간을 짜내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의 자질 문제도 시간을 두어 각자가 채워가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교사의 자질 문제는 그 정도에 붙이고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가정에서까지 주교 교사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요. 학교 담임교사와 교회의 담임교사와 너무 구별하여 생각하고 계시지요. 너무 현실적이지요. 표면에 나타나 는 교사만을 교사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관 내지는 생활습관을 흐려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인간교육 내지는 영적교육은 주교 교사가 더 많이 시키고 더 중요한 위치에 있건만 등한히 하고 비협조적이란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이란 교사·학생·부모가 삼위일체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작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면 차고 더우면 더운 신앙, 순교의 작오가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부탁하고 싶군요.

사회자 :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작부의 교육 목표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일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없이 교육만 시키는 실정

박찬설 : 우리 유치부는 「지혜롭게 키우자」의 표어로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조사해 보지 못했어요. 어린이들의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즉 평가를 해보지 않고 교육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학부형 초청 화담회를 통해 평가를 해가면서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장병기 : 저희 중등부는 「기도·찬송·성경의 생활을 하자」로서 교사님들이 교사님을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급년 중등부의 표어는 교사님들이 출산 수범을 하여야 학생들에게 효과와 있는 것이기에 교사의 영향이 크지요. 설교 자체도 목표에 맞게 강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중등부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올바르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집회시간 표어제창으로 강조하기도

위은성 : 우리 대학부에서는 주일 아침에 표어제창을 하여 생각게 하며, 지식과 생활의 적용이 금방 이뤄지지 않지만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게 되고 특히 토의시간에 목표에 맞게 주제를 선택하여 토의를 하며 경험을 이야기하고 특히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해 줌으로써 자신들을 바로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철영 : 유년부는 「예수님을 따라가자」의 표어로 가장 활동적이며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줄목이 있는 듯하지만 학생들의 수업태도 떠들던 것 줄었고 전도 등 기타 행사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표에 맞는 교육의 결과 산물이라 할 수 있지요. 한가지 문제점은 졸업이나 결혼으로 인한 교사의 결원이 잦다는 것입니다.



(김 보 일)

김경희 : 고등부는 집회때 열심을 보이고 교사기도회 학생절야기도회와 강조점을 보면 목표에 접근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설교나 분반공부는 동떨어진 감이 있는 것

“교사의 임명은 일단 인사규정 하에 시행되어야겠는데 교사로서의 결격사유만 없다고 하여 각 부서에 적당히 임명하는 것은(다 그렇지는 않아도)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느낌이므로 그런 인사행정은...”

같아요.

사회자 : 이번에는 「교회에 바란다」의 내용으로 주교 교육과 관계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교사를 행정에서 담임으로

장병기 : 첫째 행정 우선보다 교육 우선의 인사행정으로 유능한 교사를 행정에 종사시켜 반을 맡지 않게 하는 것보다 행정은 약간 미숙한 교사를 시키더라도 교육에 유능한 교사를 안배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집사 임명시 교사의 경력이 있는 분이나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임명했으면 좋겠으며, 셋째, 교역자들도 각 분야별로 전문화시켜 한가지씩 전공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분야별 전문교역자 양성 내지는 육성이 필요해요. 넷째, 교회를 지을 때 주일학교 담당 교사 및 실무자의 의견도 들은 후에 건축했으면 해요. 한방에 한반씩 약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다섯째 시간표 변경이 있었으면 해요. 대예배시간(Ⅱ,Ⅲ부)을 10~15분씩만 당기더라도 주일학교의 분반공부 시간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교회의 교육의 난점은 교리면이 약한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보충하여 먼저 교리공부를 철저히 시켰으면 해요.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리 교육을 실시해야 될 일 같습니다.

대예배시간 10~15분만 빨리

박찬섭 : 우리 교회의 교육활동은 교육위원회의 지도·감독으로 전체적인 체계가 많이 잡혀졌지만 우리의 육신감아서는 교육위원회가 지시사항보다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 좀더 관심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교사새미나라든가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특강 내지는 수련회를 최소한 1년에 4회이상 실시하여 수시로 교사의 자질을 점진 내지는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김철영 : 교사의 경질을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사 임명시 신중히 하여 안정성있는 인사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희 : 교육과정 및 교재준비에 있어서 획일화 내지는 일관성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획하고 다시 분야별로 모여 신중히 검토하여 일관성있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만들면 좋겠어요. 특히 부교재를 충분히 준비하여 교회는 교사들에게 준비교재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주어야 할



(박 찬 섭)

것 같아요. 더우기 시청각 교재 역시 충분히 동원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임명에 신중을 기해야

김보일 : 교육관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물론 주위 사정 때문에 못 지었다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로 하여튼 장소 문제가 매우 시급해요. 그리고 교사발굴 또한 시급해요. 우리교회는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발굴만 하면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있어요. 교사임명 역시 교사의 능력 내지는 일단 인사기준을 세워 임명해야겠는데, 교사로서의 결격사유만 없다고 하여 각 부서에 적당히 임명하는 것은(다 그렇지는 않아도)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느낌이므로 그러한 인사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호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필요부서에 임명해야 되겠지요.



(장 병 기)

전적 투자할 수 있는 유급교사 필요

박찬섭 : 교사의 문제로 교사가 생활에 염대이면 대화의 시간도 못가지게 되고 전문적인 것을 요구할 때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해요. 또한 피교육자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대해 유급교사를 임명하여 교육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지요. 학생들에게 전적 투자(시간, 지식등)할 수 있는 유급교사를 정책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교사가 유급이 아니라 5~10%의 교사를 유급으로 하면 보다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과 교회에 바라신 내용이 어떤 것은 그대로 적용되고 참고가 되어 앞으로의 주교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때 우리 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회 모두가 기여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인 문 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주교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애로점과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여 주교교육 발전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말씀 매우 감사합니다. (※)

한국교회와 8·15 해방



김 차 생 집사
 <원간총현 편집위원·청년부 교사>

○...우리나라의 8·15해방이 흔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解放史)...○
 ○...와 비유된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었던 애굽 압정으로...○
 ○...부터의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바벨론의 포로생활 가운데서도...○
 ○...살아 남기 위한 피나는 노력, 죽으면 죽으리라고 민족을 구원...○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의 희생등 구약성경에 기록...○
 ○...된 이스라엘민족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라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한국교회역사 또한...○
 ○...핍박과 수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8·15 해방하면 한국교회사를 이야기하게...○
 ○...되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와 비유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

핍박과 순교로 점철된 한국교회사

한국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핵심적인 쟁점은 나라의 무너진 주권회복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본제국주의의 신도(神道)에 대한 대항이었으며, 이는 신앙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신앙의 해방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물론 조국의 광복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지만 표면적이고 실질적인 투쟁은 「천조대신(天照大神)」이라는 일본의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신앙수호를 위한 행동이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日帝)에 의해 70여명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주지철 목사, 채정민 목사등 50여명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200여 교회의 폐쇄와 함께 3,000여 성도가 투옥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한국교회의 역사는 철저한 순교정신에 입각한 신앙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맞고 목숨을 잃어도 꺾이지 않은 순교자의 피의 신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 순교의 피의 값으로 한국의 해방을 주신 것이라 믿기에 추호의 의심할 수가 없다. 비록 오늘날은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남단에만 몰려 있기는 하지만 5백만 성도도 자랑까지 하는 선교 당시의 순교자들의 피와 일제의 바알신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순교자들의 피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공산당들과 맞서 싸우다가 피를 흘려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가 밀려름이 되었으며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대구 등의 웅장한 성전에서 무성하게 자라 이 땅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초기 활동과 일제침략

1884년 우리나라에 선교사 일국이 허락된 이래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한국교회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미국의 남·북 장로교회와 남·북 감리교회 및 호주장로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가 앞을 다투어 교회·학교·병원을 세워 「기독교한국」의 대전을 굳혔다. 특히 미국장로계의 언더우드와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의 서울에서의 활약은 팔복할 만한 것이었고, 평양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힌 마태(마조삼일)의 업적은 한국 기독교선교사상 찬란한 성과였다. 그리고 서울의 제중원(후에 세브란스병원)이 된)은 한국에 서양 의학을 도입하는 서구적인 것이 되었고,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는 한국 신교문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관북지방의 마조삼일 목사의 활약은 놀라운 것이었다. 평양·신의주 등 중요 도시에서는 주일이면 천시(撤市)를 하리만치 많은 성도들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원산·홍남 등의 함경도 지방에서도 많은 성도가 있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부산·대구·마산·전주·광주 등에도 높은 종각이 우뚝우뚝 솟아올랐으며 밋션 스쿨(mission school)과 병원이 세워졌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09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무력에 의한 강제 합병이 이루어진 후로는 교회가 일제의 엄중한 감시 밑에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05인사건과 1919년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한국교회가 말고 나선 후에는 더욱 더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많은 교회가 일제의 관현에 의해 파괴되고 많은 교인들이 희생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있던 두령바위교회와 교인 30여명을 예배당에 불러모아 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교회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러 태워죽였다. 당시 제암리의 이웃에 있던 수촌교회에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만행이 자행되었다. 그 당시 일본 헌병을 지휘했던 아리타(有田) 중위는 그 후에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규탄을 받을 만큼 잔악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차마 논드고 볼 수 없으리 만치 이보다 더욱 참혹한 것을 섬세치 않았다. 이같은 온갖 핍박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잠시 성장을 멈추는 듯하였다.

일본제국의 만행과 한국교회의 수난

주 예수의 강림이 불현하니
 지 천당 복 연을 자 회개하게

3·1운동 이후의 한국교회는 그 시대적 배경이 그러 하듯 침울하고 암담했다. 이같은 상태에서 교인들은 어느 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부흥사들이 곳곳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 모두 그러했다.

길선주·김익두·박재봉·유제선·이기선 목사 등이 집회때마다 재림을 기다리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부흥사들 중에는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친군 천사 거느리고 구름타고 오시는가고…」하는 부흥성가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부흥사들의 말소에 위로를 얻고 그 험한 역경을 이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 소위 만주사변, 지나사변 등으로 정국이 점점 혼란하다가 종래는 일제의 진주만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를 더욱 강화했다. 모든 것을 전시체제로 바꾸고 노력동원은 물론 많은 재물을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약탈해 갔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하였다. 고을마다 신사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 「가미다나」라는 천조대신을 섬기는 위패를 집집마다 만들게 하여 거기에 절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일본 궁성에 있는 일본 임금에게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매일 아침 하게 하였다. 일본 임금을 아라비도가미(現人神)라고 하여 숭배를 강요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반도인(半島人)도 천황의 적자(赤子)」나 하는 려울 좋은 명목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징용·징병으로 전쟁마당으로 몰아내어 연합군의 대포배이 되게 하였다.

예배당 달고 신사참배 않는 학교 폐교

이렇게 악랄한 통치를 하면서 일제는 또한 찬송가를 고치게 하고(예를 들면—십자가 군병들아,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성경 귀절을 삭제하라는 등 발악을 하다가 전쟁 말기에 와서는 끝내 예배당 문을 달고 말았다. 예배당을 말먹이의 창고에 사용하는가 하면 군수물자공장으로 징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국을 인식시킨다고 복사를 강제로 끌어내어 일본 신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신관이라는 자들이 신도사상이라는 것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학교는 무조건 폐교를 시키는가 하면 남녀노소 가릴것없이 제국에 방해물이라고 생각되면 무차별 투옥시켰다.

이때 일부 교회는 시국을 인식한다고 신사참배와 노력동원에 응하며 신앙의 지조를 팔아먹는 비겁한 무리들이 생겨 오점을 남기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당 출입마저 못하게 되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성경연구와 눈물로 기도하는 은신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간교하고 가혹한 일제의 꾀박에 굴복하지 않은 이들이 가진 힘이란 오직 참된 신앙이었다. 주남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과 제명을 주셨는데 이같은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여 천조대신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또 평양 산정현교회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일시 석방되었을 때 한 「일사각오(一死覺悟)」라는 설교제목이나 「다섯가지 나의 기도제목」이라는 것을 보면, 오직 순교의 각오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국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투옥된 사람

들은 70여명인데 이들은 온갖 고문으로 거의 옥중에서 순교하고 해방과 함께 출옥한 분들은 불과 20여명에 불과했다.

해방은 되었어도 한국교회의 짐은 무겁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이라는 일 본 천황 「히로히토」의 방송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이 땅에는 해방이 되었다. 이때 우리들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렀다. 이와 함께 곳곳에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통회의 기도를 올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부르는 23편 적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의 이 한편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였다. 이때 크리스찬 시인 박두진씨는 이 해방의 감격을 이런 시로 읊었다. 「해야 솟아라/밝은 해야 솟아라/산넘어/산넘어서/어둠을 살아먹고/말장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에페미야서를 근거로 한 이 시는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의 감격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북한에 진주한 무신론자 붉은 군대는 그들의 괴뢰정권을 세우고 교회를 온갖 잔악한 수단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해방전 북한주와 동만주에서 교회를 탄압한 일이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붉은 군대의 연호를 받으면서 북한교회를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무차별 투옥 혹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는 수 없이 남쪽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다. 조만식 장로와 같은 북한교회의 원로 지도자들은 교회와 조국의 산하를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붉은 무리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6.25를 도발하여 동족상잔의 처참한 혈육전을 전개하여 무수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이 강산을 초토화하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 통일의 열원은 보양계 안개 속에 가려 있고 휴전선에는 아직도 화약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북괴는 소위 사대군사노선을 확립하고 호시탐탐 그들의 적화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반세기 동안 이땅에서 평화의 역군으로 우리와 함께 반공전선에서 싸우던 미지상군의 철수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중공의 세력은 날로 맹장해 가고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또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할 바를 망각하고 준비에 게으름만 피우다가 또 다시 일제 치하와 8·15때와 같은 신앙의 환난을 자초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공산당의 학정하에 있는 성도들은 토굴에서 굴방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제사장직의 직분에 대한 자아의식을 일깨워 민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을 다짐해야겠다. 죄와 불신앙의 상징인 철의 장막이 깨지고 이북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오천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뿌리며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제2의 8·15해방이 북한의 모든 동포들에게 속히 주어 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

직분자의 기본적 교회관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차례

- I. 직분자의 기본적 자격
- II. 직분자의 기본적 사명
- III. 직분자의 기본적 자세
- IV. 직분자의 기본적 교회관
- V. 각론(장로·집사·권찰·교사·성가대원)
- VI. 봉사의 원리
- VII. 봉사자가 받는 축복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위한 직분에 올바르게 증성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교회당)인 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클레시아)는 곧 “성도들의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성화되고 그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연합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이다.

그에서 “웨스트민스터”신도계요서는 “무형한 공동적 혹은 보편적 교회는 피택자 전수로 구성되나니 곧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인, 모이는, 모임 사람들이다”(25장 1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교회에 대한 유사적(類辭的)인 칭호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골 1:18; 롬 12:4; 고전 12:27)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통일성(엡 4:4-6; 고전 12:20)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성과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전적인 의뢰와 충성의 의무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롬 12:5; 엡 4:25)는 성도들의 영적 연합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교회를 섬길 때 ① 교회봉사는 머리되신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② 언제나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며 ③ 자신이 먼저 투철한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같은 지체인 다른 성도 한사람 한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나 된 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말은 아량껏하지 않고 자기 분위로 봉사한다면(이런 것은 봉사도 아니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교회관을 바로 갖지 못하였거나 바로 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고전 3:16)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로서 구성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이 말은 교회는 신성하며 불가침이라는 사실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빌 3:3)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서 봉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서 처음 집사를 택할 때 자격요건의 첫째가 성령충만한 사람이었다(행 6:3).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증성할 수도 없고(롬 8:9)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고전 2:11-13) 능력있는 봉사를 할 수 없다(행 1:8; 스 4:6).

그러기에 직분자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3.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딤후 3:15)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후세에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쳐 준 믿음의 내용과 그들이 건설한 교회의 제도를 그대로 간직하며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큰 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섬겨야 하며(고전 4:6)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복음)를 전하는 것이 교회봉사에 있어서 가장 귀한 봉사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갈 4:26; 히 12:22; 계 21:2, 9, 10)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와 교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처이니 이 거처는 지금 부분적으로 이 땅위에 있으나 하늘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런 나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제림을 사모하면서(벧전 5:1-4) 그날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딤후 4:8) 오늘에 받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스테반 집사는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행 7:55-60). 이처럼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관을 바로 가질 때 겸손하게, 능력있게, 절서있게, 영광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될 것이다.

〈다음호 계속〉

멋대로 만든 교리를 중심

윤 형 철 전도사

<중동부지도·충신연구원 3>

전도관(한국예수교 전도관부흥협회: 1955년 조직)의 교주인 박태선씨는 자칭 영모(靈母)로서 경기도 소사덕소, 경상남도 기장에 신앙촌을 건립하고 신앙과 기업을 통솔하고 있다. 이 전도관의 원리체계는 「오묘원리(奧妙原理)」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사적 교리 대신에 박태선씨를 기대로 한 천년성의 복귀론이다.

1. 「오묘원리」의 창조론

오묘원리의 창조론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의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태초부터 우주에 「하나님과 마귀」 「선과 악」의 두 원리가 존재, 대립하여 무궁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동양철학의 역학(易學)에서 말하는 음양 이원론(陰陽二元論)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2. 「오묘원리」의 타락론

오묘원리에서는 타락을 피의 변질로 보고 있다. 즉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수했던 피가 변질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요, 곧 그들의 피가 더러워진 것이라 한다. 그들은 순수한 피에 불순물이 섞여 피가 변질되었고 피가 더러워지므로 색계되었고 더러워진 피속에서는 악만 나오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은 피의 변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초 인류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한 데서 온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더러운 피가 그의 후손들에게 혈통적으로 유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했다. 즉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혈통적으로 유전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대표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3. 「오묘원리」의 구원론

오묘원리의 구원론은 박태선씨를 1인 3역(동방의 의인, 이진 자, 감람나무)으로 표현하여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로 「동방의 의인」 구원설은 사 41:1-29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어”(사 41:2),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사 41:9),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사 1:25) 등의 귀절을 지리적으로 보아 한국이라고 생각

하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사 41:25) 하는 말씀을 평북 출신의 박태선씨가 남한으로 오게 된 것을 예언한 것으로 풀이한다. 둘째로 「이진 자」의 구원설을 말한다. 「이진 자」 박태선씨는 성령으로 완전히 죄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사를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 주어 살아서 주 뜻을 자각자를 이루시는 자요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이다. 세째로 감람나무의 구원설을 말한다. 감람나무는 기름부음을 받은 뿐 아니라 넘치도록 받은 자요, 이슬같은 은혜를 내리고, 향기를 날리는 자로서 이는 곧 박태선씨라고 한다. 전도관 신조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다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고 「감람나무를 통하여 완전한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고 천당에도 가고, 영원불멸할 수 있고 부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안수 안찰로써 죄 사람을 받고 그의 생수와 축복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말씀하시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택한 자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4. 「오묘원리」의 성령론

그들은 성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성령과 십자가를 지신 후의 성령으로 구분한다. 전자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의 형체로 나타나신 성령이요, 후자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다른 보혜사(요 14:16)이시다. 전자의 성령으로서는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보내 주신 다른 보혜사로서 죄를 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으며(고전 12:9, 11, 13; 엡 2:8; 4:4) 성령의 사역은 죄를 사유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임을 보여준다(요 15:26; 고전 12:3).

또한 그들은 성령을 삼위일체의 한 격위인 인격으로 보지 않는다 「이진 자는 물·불·피의 3증거(성령)를 받은 자이니, 이 신령한 만사를 먹으면, …… 이 만사는 곧 주의 보혈」이라고 하며 또 「주님의 피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하며, 「다른 보혜사 성령은 곧 살려주는 영」이며 「주님의 생명이자 마음」이라고 한다. 즉 성령을 「예수님의 보혈」 「만사」 「살려주는 영」 「주님의 생명이자 마음」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지·정·위를 지니신 인격체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요 14:26; 롬 8:26; 고전 2:10-12; 고전 12:11 엡; 4:30등). (*)

1200자 감상

그런데 할렐루야!

김 인 숙

예수원에서의 일이다. 이번 수양회는 조금 별다른 때가 있었는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고 말하자면 진행상의 오류를 범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좇아갔다고 말한다. 그래서 「되어가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놓았다. 그때 잠시 —이것이 잠시였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 유행한 말이 있었으니 「그래도 할렐루야!」란 묘한 말이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문명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태백산 중턱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나서부터다. 우연한 사고로 발전기가 타 버려 미처 손을 쓰지 못한 채 예수원이 몽땅 타버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목사님은 마침 원장 선생님이 출타 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 걱정하고 있는데 원장 신부님은 이미 그 사건을 입에 입울 통해 알고 들어 오시면서 「할렐루야!」를 밀려서부터 외치며 들어오셨다고 한다. 걱정에 쌓인 목사님에게 이번엔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예수원이 탈 때 그만 신부님이 일생을 걸쳐 집필한 방대한 양의 원고와 그 아내의 전서와 준비물 등등 그 많은 훌륭한 유물이 몽땅 타버렸다는 일이다.

그때 비록 밤기차가 연락을 너무 오래하는 바람에 그날 저녁 집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에 이른 사람이 상당수였으나 우리들 입에서는 「그래도 할렐루야!」였었다.

오랜 기간을 끌면서 이제 성전건축이 본 궤도에 오른 듯 싶다. 대지문제의 일부도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일부의 비난이 있을 수도 사실이다. 계획 자체가 워낙 크고 어려운 사업이기에. 그러나 오랜 기간을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린 「그래도 할렐루야!」를 부르짖던 심정과 비슷한 기간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굉장한 필요성을 느낄 때는 모든 어려움을 「그래도」라는 한마디 아래로 가리워 버린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그래도」에서 「그런데, 그러나」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성전건축에 있어 교회의 선제담당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의 뜻이 적극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느끼는 것은 산에 오르려 않으면 자기가 사는 제지를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품소 교회를 위해 뛰어 보지 않을 때는 성전건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인 성전건축의 참여 방법은 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헌신과 아픔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제에 비로소 「그런데 할렐루야!」란 말이 입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기도와 표현적으로 드러날 성전을 위한 투지도 증가될 것으로 믿는다.

찬송가 해설 ⑧

나의 사랑하는 책

(My Mother's Bible)

(새 215; 개 547; 합 166)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 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진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은 이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손동작을 곁들여 새로 배운 찬송 중의 한 곡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성경을 자기도 사랑한다는 내용의 이 곡은 윌리엄스(M.B. Williams)목사의 작사와 틸만(Charlie D. Tillman)목사의 작곡으로 이루어졌다.

1839년 6,000명이나 모인 보스턴의 세계기독교노동자대회(World Convention of Christian Workers)의 위대한 찬송 인도자 샌키씨(Ira D. Sankey)의 일을 틸만 목사가 대신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알라바마주 태생의 감리교 부흥사이자 가수인 틸만 목사는 뉴요르크주에서 윌리엄스 목사와 계속적인 부흥집회를 열심히 인도하고 있었다.

하루는 부흥사 윌리엄스 목사가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려는데 그의 설교가 끝난 후, 찬송으로 성경에 관한 적당한 찬송을 고르려고 찬송가와 성가집을 뒤적거렸으나 찾지를 못해 고심 끝에 그의 동역자 틸만 목사에게 성경에 관한 찬송을 골라 달라고 부탁했다. 즉학으로 음악을 공부했고 한 6년 전에 약 32곡의 성가집을 낸 바 있는 틸만 목사는 애기를 들은 후 「윌리엄스 목사가 작시를 해보시오, 그럴 내가 곡을 붙이도록 해볼 테니까요」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목사에게는 영적인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쾌히 받아들여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그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오랜 세월을 두고 충실하게 고이 간직해 가며 애독하다가 임종 때 윌리엄스 목사는 성경을 펼쳐서 뒤에 동백편에다 연필로 「어머니의 성경」이라고 써놓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 그때의 일,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을 얼마나 어머니가 사랑했는가를 그대로 적었다. 15분도 채 못되어 그의 작시는 끝났고 동역자 틸만 목사에게 3절과 후렴까지 읽어 주었다. 틸만 목사는 깊이 감동되었는지 2절을 읽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님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고초 당하시고 괴물리셨으며 돌아가셨는지를 읽으셨다. 예수님의 무거운 근심의 짐은 나를 위하여였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는데 어머니는 입맞춤으로 내 눈물을 닦아 주셨다.

윌리엄스 목사가 작시를 읽어가는 동안 틸만 목사는 알맞게 작곡을 했다. 윌리엄스 목사가 다 읽고 쳐다보니 「윌리엄스 목사 참 좋았어」 틸만 목사가 말했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구입한 책과 이미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순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6월에 구입한 책

- 교의신학/박형룡/모수신학서적간행회
- 세계기독교회사/워커 윌치스턴/대한기독교서회
- 칼빈주의 문화관/반빌 헨리R/영음사
- 성경신학/박윤선/영음사
- 교회사/모이어 E.S./대한기독교서회
- 사랑의 원자탄/안용준/신망애사
- 칼빈주의 예정론/비트너 로레인/백합출판사
- 헌신에배설교집/이찬영/청암출판사
- 불타는 세계/그레함 빌리/생명의말씀사
- 참된 그리스도인이...../와이어 G.C./생명의말씀사
- 셀다싱의 생애/데이비 시릴 J/교문사
- 현대신학해설/간하배/개혁주의신행협회
- 자아가 죽을때/워치만 니/청암출판사
- 무엇이 다른가/리데나워 프릿츠/생명의말씀사
- 발달심리학/민영순/교육출판사
- 왜 나는 크리스찬이/할레비오/사막의열사
- 기도/할레비오/생명의말씀사
- 성령/팔마·에드윈H/개혁주의신행협회
- 이성에서의 도피/세퍼프랜시스/서광문화사
- 그리스도를본받아/토마스아퀴나스/대한기독교서회
- 기독교강요설/칼빈·존/대한기독교서회
- 칼빈의 생애와.../전경연/진교
- 신약의역사/안트W.F./퀸클리다
- 부스러기목사 행장기/가꾸구니모/청암출판사
- 보혈의은총/박신출/은성문화사
- 구세군교리/구세군대한본영
- 기본전도학/어트리C.E./침례회출판사
-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워치만 니/생명의말씀사
- W.M신앙고백/이종성/기독교서회
- 기도/맥커우리/경지사
- 위대한 여자들/마카르니E/기독교서회
- 제임즈/한국결스카우트
- 신앙성서해라어/이순환/백합출판사
- 어린이강단/기독교교육
- 죽으면살리라/안익숙/신망애사
- 기도의 능력/바운즈/생명의말씀사
- 영에 속한 사람/워치만 니/생명의말씀사
- 헌법/장로회총회출판부
-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기독교서회
- 교회의 교육적 사명/스마트J.D/기독교교육
- 신앙문제의 해답집/줄러·존/보이스사
- 508문답/디한M.R/성청사
- 목사와 기독교교육/김득룡/크리스찬헤럴드
- 신앙생활의 첫걸음/캠페이션성경
-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마아살 I.H/IVF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으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슬겁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때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서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총련」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고 증 석 지음

우리 다시 만날 때

4·6판/160면/500원

은성문화사 발행

앵기라는 뇌성마비환자 딸을 가진 어머니의 수기(手記)이다. 생후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앉아보지도 못한 기막힌 환자딸이었다. 실로 어머니의 보살핌이 부족하였더라면 단 하루도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사지의 위축을 막기 위해 팔다리의 운동을 시키고 영양실조와 무지를 막기 위한 어머니의 비상한 노력이 지속되는 모성의 기록이다. 그리고 앵기 자신이 저항력이 약한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지능계수(IQ)가 놀라도록 높아 신문을 읽어 줄 때에 한글을 완전히 알게 되었고 또 기억력이 대단하였다.

더우기 앵기의 믿음은 돈독하고 마음씨가 인자하며 고운 이야기의 내용이 읽는 이의 눈시울을 적신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앵기와 같은 불행한 사람을 보살필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차원 높은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마쓰다 이즈미 지음

지금은 몰라도

4·7판/224면/600원

크리스찬비전사 발행

본서는 시베리아 삼림지대에 있는 사상범 여자수용소에서 4년동안 복역한 일이 있는 일본 여성도의 신앙수기이다. 안익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가 우리 교계에 널리 읽혀져 많은 감명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본서는 마치 일본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저자 이즈미 여사는 자주 안익숙 여사와 한 팀이 되어 일본 전역을 순회하면서 전도강연을 하는 때 많은 감명과 놀라운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예수님께서 얼굴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이고, 슬픔에 잠긴 사람이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희망을 줄 것이고 살 고자 하는 힘을 되찾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근 목사(총련출판위원회)

나는 공산당의 압잡이었다

어느 중공 간호원이 주님을 영접한 이야기

10년 전만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열렬한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소위 혁명적인 공산주의 가정에서 태어나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홍위대(중공에서 문화혁명이 진행중이던 1966년 2월에 활동을 개시한 청소년조직) 활동에 열성을 쏟기도 하였다. 나의 이와 같은 열성과 가정성분이 인정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간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되었다. 이렇게 하여 내가 간호교육을 마치자 당은 나에게 첫 임무를 맡겼다. 그 임무란 웨크 박사는 아주 유능한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는데 그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공산주의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으로부터 이러한 임무를 명령받고 처음이라서 매우 걱정이 되었다. 더구나 웨크 박사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웨크 박사의 믿음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모두 어리석고 연약하다. 열심있는 공산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예수쟁이를 알게 서기를 주저한다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의 사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는 첫번째 공작방법에 따라 우선 그를 알고 그의 환경을 자세히 파악하는 일부터 착수하였다.

웨크 박사에게는 형님 두분과 누이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집에서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웨크 박사의 아버지는 그가 이미 어렸을 때에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어린 4남매를 키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남매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잘 양육하

였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이러한 어머니를 무척 아끼고 존경하였고 순종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가정이라도 비난을 받을 만한 조그만 잘못이 하나쯤은 있는 법인데 내가 보기에 웨크 박사의 가정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가정이었다.

웨크 박사가 대학시절에는 아주 우수한 의과대학생이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고 좋았다. 이러한 그는 아직 젊은 학생시절에 벌써 전문의사의 자격을 얻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 배치되어서도 항상 친절하고 솔직하여 공산당원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특히 그의 환자들은 더욱 그러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웨크 박사와 가까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주 손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만날 때마다 많은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한두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는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흥미는 우정으로 발전되었다. 또 오래지 않아 그를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공산당의 일원으로서 이같은 것은 감상적인 것이며 냉정하게 억눌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병원에 왔으며 나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은 괴롭기만 했다. 나는 그가 나의 남편이 되어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크리스찬과 결혼할 수 있느냐는 말인가?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한가지에 기대를 걸기로 했다. 그것은 목표가 되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그 사람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웨크 박사가 그의 믿는 바를 확신에 넘쳐 이야기를 할 때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가 끊임 없이 그에게 장래의 성공을 위해 미신같은 신앙을 버리고 공산당에 가입하라고 설득하면 그는 언제나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대답했다.

칼·맑스는 종교란 단지 약한 자를 위한 것이고 강한 자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배워온대로 기독교가 거짓이고 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웨크 박사도 어딘가 연약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웨크 박사와 그의 가족을 도저히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니 크리스찬인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더우기 나의 끊임 없는 그의 신앙에 대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웨크 박사는 나를 사랑했고 더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또 나는 그의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가



◇ 애국노동이란 미명하에 혹사당하는 중공인들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공산주의자를 욕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같은 경험을 통해 어머니의 믿음을 더욱 단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자기가 사랑하며 존경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비난의 말도 없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뿐만이 아니라 더욱 이상한 것은 그의 어머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고통이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의 머리카락 한가닥이라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셰크 박사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읍니다”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나에게 계속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성경을 읽도록 권했다. 나는 그의 권고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로 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끄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편 107절을 읽을 때 이상하게 나의 마음은 찢어졌다. 나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동안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부인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다. 그와 동시에 나의 오랜 신앙이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의심이 생기었다.

탐스와 앵겔스는 단지 인간의 생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인간이란? 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지는 못했다. 또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웃을 위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가르쳐 주지 못했다. 레닌은 단지 당의 권위를 위한 훈련과 개념과 북중당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새생명을 주셨다. 이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침내 나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솟아올라고 어떠한 고난도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나의 이같은 회심으로 정말 기쁜 일이지만 마침내 공산당은 당으로부터 나를 내어쫓아주었다.

그 후에 나는 물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셰크 박사와 결혼할 수 있었다. 변절자인 내게 공산당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나는 이것이 값진 전구를 사기 위해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댓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름도 없는 조그만 시골로 쫓겨갔고 그곳 보전소에서 일하도록 허락되었다. 우리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으며, 더우기 우리가 맡은 일로 시골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를 가리키는 「우리」라는 말속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그저 놀라울 뿐이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 이 글은 홍콩에 있는 중공연구센터에서 발행되는 신앙강령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중공연구센터는 홍콩에 있는 지하교회인들에 대한 실상을 자유세계의 교회들에게 알려 자유중국을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해외선교 소식

□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개척교회 후보지 답사를 위해 6월 21일부터 23일 까지 남부 스마트라 이민 지역 시도물리오, 갈리안다, 팔라스 지역 등을 본 선교부 남부 스마트라 지부장 베드로 목사의 안내로 답사하였음.
- 시도물리오 교회를 개척중에 있는 웅까나 목사가 농장교회를 새로 설립코자 본 선교부에 보조를 청원한바 제2차 답사시에 답사한 후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홍콩—홍중만 선교사

- 6월 19일에 홍콩 지하철공사에 취업하여 이곳에 온 한국인 15명(신자 5명 포함)을 교회에서 초대하여 환영회를 열어 천도함.
- 6월 20일 부인회 주관으로 홍콩 앞바다에서 침몰 선박 인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30명을 방문하여 집실을 대접하고 천도함.
- 6월 29일 육군사관학교 전도비조로 1,200달러(6개월분)를 송금했음.

※ 6월 교회 현황

	남녀장년	주교생	헌금통계
첫째주일	107명	39명	304,790원
둘째주일	105명	34명	340,350원
셋째주일	110명	43명	261,670원
넷째주일	122명	43명	101,695원

□ 중동—이연호 선교사

- 이집트(에글)총회 산하 실학대학에서 10월부터 시작되는 실학기에 「구약서론」을 강의하여 딸라는 정식 요청을 받았음.
- 카이로 한인연합교회의 발기인 수
담임목사: 이연호 목사
장년: 남-3명
여-6명
유년: 남-4명
여-6명

□ 서독—유호기 선교사

- 바이스바덴 한인교회는 올해 중에 부흥되며 평균 20명이 매주 출석함.
- 란독 교역자 권복희 닥 세이니를 개회하였음(6.24-26)
-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한인교회를 개척코자 계획 중이니 특별 기도 바랄.

□ 일본—유병세 평신도선교사

- 아베 이윤호 전사와 함께 역전·백화점·기차안 자리에서 노방전도하며 300여회의 축도전도를 실시함.
- 일본인 의사 부부와 일본인 원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눔.

청년신앙수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김 경 생
<청년부 연례회 총무>

청년부 제 7회 하기수양회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고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수양회를 4일 앞둔 목요일 밤이었다. 무던히도 쉼은 밤이었다. 이러한 더위 때문인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가 12시를 친 지 이미 오래다. 그때 남부 순환도로를 달리는 화물트럭의 크락션소리가 몽롱한 내 정신을 번쩍뜨게 만들었다.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도도 자꾸 같은 말만 반복되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 주제성구인 시편 103편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시원치 않았다. 그래도 또 다른 성경구절을 뒤적이다가 4복음서에 눈이 머물렀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2장 9절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씀이 유독 눈에 돋보였다. 예수님의 첫 이적에 관한 말씀이었다. 나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오는 7월 17일에 있을 수양회 준비기도회 및 오리엔테이션 때, 이 말씀을 내용으로 기도회를 인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올해의 청년부 수양회는 잔치집처럼 기쁨과 희열이 넘쳐야겠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이번 기회에 변화되어야겠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빛깔과 맛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용도와 그 가치도 변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도 이처럼 변화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날에는 불의의 병기였던 사람도 이 잔치(수양회)에 참여하여 변화되어 앞으로는 의의 병기가 되어 일생을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아무도 몰랐지만 일을 하던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다.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이 하인들처럼 나도 수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했다. 이러한 심정으로 나는 다시 열드려 기도를 시작했다. 「주여, 수양회를 준비하는 40여명의 모든 회원들이 물을 떠온 하인들의 심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양회 첫날 첫 시간이 되었다. 우리 126명의 회원은 옷깃을 여미고 말씀을 기다렸다. 강사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여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안녕하십니까?』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

사모와의 대화



홍종만 선교사 사모(사진)가 지난 7월 20일 잠시 귀국하였다가 바쁘신 중에도 월간 송현 편집실을 찾아주었다. 이 자리에서 기자와 나는 이야기 가운데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문→사모님, 이렇게 다시 뵈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교회에 오시니 기쁘시지요?

답→네, 특별히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감회가 깊어요. 또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니 우리 홍콩교회도 빨리 이렇게 되어야 할 터인데 하는 생각도 들구요.

문→처음 홍콩에 가셨을 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어려웠던 일이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답→홍콩에 도착하기까지는 불안한 마음도 없잖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고 떠났지요. 도착해 보니 50여명이 모이기는 하는데, 그저 형식적인 뿐 앞장서 나가는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저 덩그러니 주일 낮 예배의식 뿐이었어요. 그 때 처음가서는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수소를 해설라도 어떻게 하든 찾아가 만나보고 인사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했지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정말 큰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셨어요.

문→그런 현재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저희가 도착한 지 10개월이 되는 지금 어른 130여명 모이지요. 중고등 학생도 40여명이 되니까 장소가 좁아 사택에서도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좁은 더 넓은 예배당을 허락받기 위해서 기도중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18분인데 모두 어찌나 열심히 몰라요. 가서 주일전례·수요예배는 물론 구역예배도 드리고 장년성경공부도 시작하고 부인회를 조직하여 교회 내외의 봉사·주제에 힘쓰고 있지요.

문→모두가 홍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말씀과 충성한 결과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던 중공이 어떤 곳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답→밖에 나갔다 하면 적어도 10여개국 사람과 마주치게 되지요. 그만큼 여러나라 사람이 모여 살 때는 중국 사람은 물론 북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 처음 가서는 꽤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러나 겁은 안내지만 항상 조심하며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언제 누가 어떤 것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런 공산주의자들 외에도 신권을 쓰게 하는 것은, 한국에서 종이 파송되어 절을 짓고 교민들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한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재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 적도 있어요.

문→끝으로 교회에 하실 말씀은?

답→앞으로 중공은 물론 북한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문→감사합니다. 홍콩에 돌아가시면 홍선교사님과 세 자녀분에게 꼭 안부 전해 주세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버지 아시니
 불평할 게 무어랴
 우린 언제나 햇살을 그리나
 비가 내려야 함을 하나님은 아시느니
 우린 웃음소리
 기쁜 환락을 사랑하나
 만일 한 방울 눈물도 모른다면
 가슴 속 부드러움은 사라지리라……
 때로는 괴롭과 슬픔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버지
 그 시험은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고 우릴 도우심이여라……
 거센 폭풍을 이겨야
 자타나는 나무들은 힘을 얻고
 팔로 날카로이 도려내야
 대리석이 아름다움과 형상을 얻듯이
 하나님은 부질없이 우릴 헤치지 않으시며
 우리 아픔 저버리지 않으시리니
 무엇을 잃게 하시면
 다시금 가득히 얻게 하신다오……
 그러도 아낌없이 보내신
 축복을 헤아려 본다면
 불평할 까닭도
 슬퍼할 시간도 없으리라……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한결 같기에
 영혼에 아픔이 꼭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시는 일은 없느니……
 고쳐가 닦쳐오고
 만사가 피로울 때
 그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어
 우리 영혼 견고케 하시는 때라오

<헬렌 스타이나 라이스>

에베소서 5:18 “성령충만을 받으라”

안에 계시는 어떤 분

반식은 교회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저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과 떨어져 있으면 저는 별별 괴를 다 지어요. 선생님도 아시죠? 저희 식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꽤 힘들어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반식아 가령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네 대신 살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네게 도움이 될 것 같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식아, 너는 벌써 네 속에서 사시는 분을 모시고 있어. 그분은 나보다 더 힘이 많으시단다. 그분은 하나님이야, 성령님이란 말야. 그분이 네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맡겨 드려. 그러면 너는 좋은 일을 하게 될거야!”

주 예수님, 지금 저를 채워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에 채워 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세요.

매일 저를 채워 주세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발행>

어린이들을 위한 그날의 양식에서>

교사 수필릴레이

예수 몰랐다면

노 문 환

<대학부 교사>

예수 몰랐다면,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비좁은 공간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을 텐데, 구슬땀을 흘려가며 여름성경학교를 한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모기에 뜯겨가며 투박한 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추운 겨울 강종공원으로 명동거리로 발을 구르며 손을 비벼가며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어디 그뿐이라.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술·담배도 못하는 피뢰한 사람으로 어딘가 탁 티끌고 애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목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예수쟁이라는 명판 때문에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하고 부자유스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을 알았기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기도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비난 사람들이라는 지목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알았기에,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방종이 아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예수 몰랐다면 어찌 이런 자유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지명 홍인숙 선생>

시편에서 주는

주간에 만나

시편 5:3

아침에 기도하고 확인하는 생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나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다윗은 이 시편 5편에서 악인을 처치하여 주기를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 는 나의 마음을 보시는(1절) 분이시며, 나의 왕이 되 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다윗은 한 날의 생활 을 여는 열쇠를 기도로 정했습니다. 우리도 한 날의 생 활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시작하는 삶을 가져야 하겠습 니다.

“바라리이다”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확인하는 마음 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활을 쏘고 나서 그 쏜 화살이 목표에 맞았다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는 그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한 날의 생활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한 날이 마쳐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 랍니다.

시편 6:4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생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
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사람이 범죄하면 몸이 병 들어 쇠약해지고, 영혼도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은 자기의 몸에 병든 것이 범죄함으로 받은 징계라고 생각이 될 때에 “만약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어찌되겠는가?”하고 그 범죄의 결과를 생각하니 영혼까지 떨리게 되었습니다(3절).

그 때에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를 용서하시고 육신의 병이야 어찌 되었든 우선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육신이 잘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을 가져야 하겠습니다(요한삼서 2절).

시편 7:15-17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생활

『제가 웅덩이를 파면 편돌이여 제가 많은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의 처세는 겉으로 좋은 듯이 꾸며지지만 가슴 속 에는 잔인한 계획을 품는 흉악한 처신을 합니다. 악인

은 웅덩이를 파서 의인을 빠뜨리고, 괴롭히고, 망신시 키고, 자유를 박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는 악인이 비밀히 판 웅덩이가 필경 저기의 무덤이 되고 말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악인들이 자기의 계략에 빠져 사 자의 밤이 되었고, 하만은 50 척 높은 나무에 의인 모 르드개를 죽이려 했으나 자기가 달리우고 열 아들까 지 달리를 줄은 꿈도 못꿨었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악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일내로 세상을 이겨 나 가야겠습니다.

시편 8:4

주의 권고하심을 감사하는 생활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
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광대무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운행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이 낮고 천한 죄인 나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심을 생각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집회 인도하려고 어느 지방엘 가 게 되었는데, 그만 앞대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인도하 여 엉뚱한 판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 고 보니 도나티스트당이라는 당원들이 길에 숨어 어거 스티를 죽이려하던 참인데 이 일로 화를 면하게 된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경에서는 물론 역경에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 여야 하겠습니다.

시편 9:15

자기가 판 웅덩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어 그 줄엔
그물에 자기 말이 걸렸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불의한 자)은 의인을 죽이려 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의인을 잡으려고 베풀어 놓은 물물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전설에, 애굽의 파로왕이 솔로몬왕을 피어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부귀영광을 빼앗으려고 자기의 딸을 미끼 로 주고 솔로몬왕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갖은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했을니다. 한낱은 궁궐 에서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에 독약을 타서 솔로몬왕 에게 먹이려고 음모를 꾸미고는 자겨 딸에게만은 먹지 말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글기야 전처가 떨어져나, 솔로몬왕의 아내가 된 공주는 아버지에게 반역할 수도 없고, 남편을 죽일 수도 없 어서 그 포도주가 나올 때 자기가 먼저 그 독약이 든 포도주를 부어 마시고 망장에 죽으니, 이것을 본 솔로 몬왕은 죽음을 면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 왔습니다.

이렇게 애굽 왕은 남을 잡으려다가 공주만 죽이고 자 자신은 양신을 하였을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을니다. 우리는 남을 잡으려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구역소식

축하합니다(7월중 결혼)

- 최원일군/이정자집사 4남-2일 YWCA
- 서정현군/서일영집사 이귀분집사 장남 -2일 충현교회
- 김정석군, 임종화양/김광철장르 3남; 임주봉씨
- 최복순집사 2녀-14일, 충현교회

위로 드립니다(6월중 별세)

- 박노영씨/박홍규씨 부친-25일
- 한양순씨/-26일
- 전기분씨/이두신씨 부인-2일
- 김덕목씨/2일
- 손상호씨/손명순집사 부친-15일
- 김정화씨/이춘재집사 시모-17일
- 송윤덕씨/23일
- 정윤문씨/조규섭씨, 조호례집사 모친-26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 기도원 건축과 새성전 건축을 위해 간구합시다. 시당국으로부터 새성전 건축을 위한 2천평 정도의 대지가 허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나머지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리도록 계속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 정글의 고장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업은 물론 더 위와도 싸와야되는 서만수 선교사 대의를 위하여, 혼잡한 국제도시 홍콩에서 중공대륙을 바라보며 일하시는 홍종만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중동선교를 배다보며 이집트(에집)에서 준비중인 이연호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서독 비이스바덴을 중심으로 큰 꿈을 안고 선교활동을 하는 육호기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일본의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아르헨티나 신동수 평신도선교사, 서독의 박용삼 평신도선교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합시다.

전교회 성경암송대회 안내

일 시: 1977년 9월 4일(주일) 오후 3시

장 소: 충현교회당

대 상: 충현교회 모든 성도

내용과 범위: 요한복음 13장-16장

영아부-요 15: 1-8

유치부-룻만 요 15: 1-17 열매반 요 15: 1-20

유년부-1년 요 15: 1-27

2년 요 15: 1-27

3년 요 15: 1-27; 16: 1-11

초등부-요 14장, 15장

노년부-요 14장, 15장

중등부 이상-요 13장, 14장, 15장, 16장

방 법: 지정범위 성구암송으로 개인출전

시 상: 전장암송상, 각부별 우수상, 최우수구역상, 참가상

문의처: 교육위원회 행사분과(전화 29-7726)

구역장 노트⑩

신앙지도의 지침(11)

백성룡 목사

<부목사·구역원회장>

(2) 사회참여와 개혁운동

이미 말했듯이 현실도피나 은둔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신이 처해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양심에 따라 사회의 정의구현이나 자유와 인권 수호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활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활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사명과 정치기 직분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결부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참여의 뜻은 잃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역군을 많이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이시대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이뤄 드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가 마치 사회참여를 위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송두리째 교회이름 아래서 이 일을 하려드는 잘못을 밟아서는 안된다.

거룩한것과 속된것의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소극적이라고 비난만 하는 일은 매우 위태로운 생각이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는 무관심이 병폐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타락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본다.

교집스러운 바리새적인 누룩과 사두개적인 불신의 요소를 버리고 복음전리에 터진한 건전한 사회참여가 요구된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바울은 어떤 제도적인 잘못을 지적해서 말하기보다는 그 제도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사람의 심령문제를 중요시했다.

가령 노예제도는 바울 시대에 있어서 확실히 좋지 못한 제도였지만 그것을 완가할부하지는 않았다. 상건과 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맺어가며 사회적인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윤리가 어떡함을 가르쳐 주었다.

복음이 작용하는 곳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생활이 달라지고 그 주변에(사회에) 변혁을 일으켰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면 오늘 우리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복음을 통하여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참 자유와 복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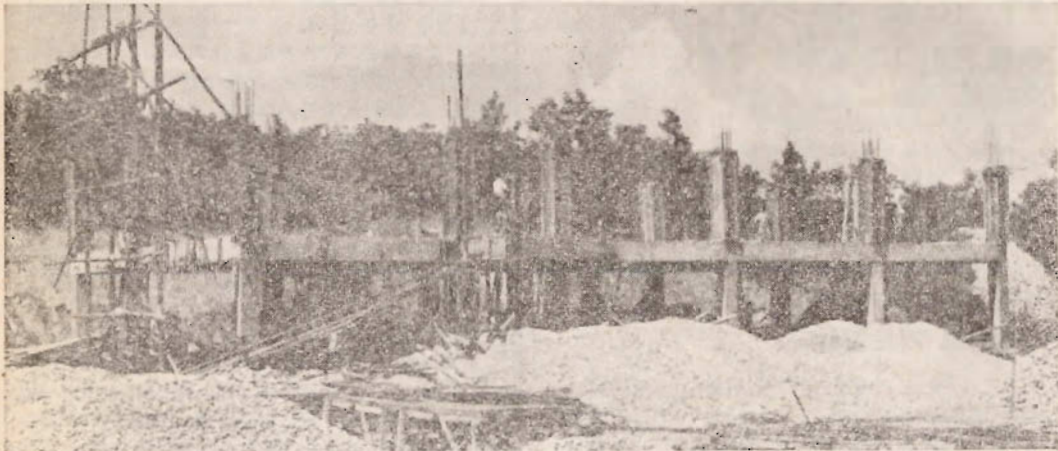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천지하게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심어주는 일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여호와는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새성전건축을 위한 허가 얻어

그러나 정신을 차려 더욱 힘써 기도하자



◇ 사진은 한창 건립중인 중원기도원 가운데 하나.

지난 7월 정기당회 때에 건축위원회(위원장 김기정 장로)는 새성전건축문제에 대해 시당국으로부터 새성전 건축을 위한 2,000여평의 대지가 허락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0여년전 우리는 새성전을 아름답고도 웅장하게 지어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기로 하고 그동안 모든 성도가 하루도 끊임없이 기도하여 왔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데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을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은 은혜로 이처럼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감사드리고 또 감사하여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누구나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교회가 논현동에 새성전을 짓기 위해 힘써 온 것을 보면 교회 설립 15주년이 되는 1968년에 교회 설립 기념사업으로 해의복음선교회 창립과 함께 새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였었다. 그때 그해 8월에 새성전의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초대 위원장 김기정 장로)가 구성되어 새성전 건축위원회를 한강 이남으로 결정하고 그 후 보지를 물색중 1970년 12월 강남구 논현동 7-11에 일약 9,000평을 구입하였다. 그후 1971년 9월 환지계획에 따라 6,067.4평을 단일부지로하여 환지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환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당국의 방침이 다소 변경이 되어 우리가 속히 새성전을 그 자리에 짓기를 원했지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여 왔었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새성전을 위해 이제까지 준비해온 우리의 정성을 아낌 없이 모두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으며 이제 이 새성전을 위한 시당국의 건축허가는 시각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부터 더욱 정신을 차리고 힘써 모든 성도가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전도위 첫 외국어전도지 발행

—영어와 중국어로

홍콩지역 선교를 위해—

국내외의 복음전도를 위해 사명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석주 장로)는 지난 7월 우리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어로 된 전도지 2,000매를 직접 제작하여 발행하였다.

이는 복잡한 국제도시 홍콩에 있는 홍콩만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 전도위원회가 중원관위원회의 기술적인

협조를 얻어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이 전도지는 한 편이 한국어·중국어 이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편은 영어와 사진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보여도 손색이 없도록 모두 천연색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일신장병 활동세례식 광경을 담은 김경인 목사의 사진 컷은 외국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광경으로 우선은 이 사진 컷에 외국인들이 크게 호감을 느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같은 좋은 천연색 전도지를 만드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서독과 아르헨티나, 일본 등 여러 곳에서 몇차례 요청이 오고 있으나 그저 마음을 쉽게 응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전도용 설교녹음 테이프 보급

—김창인 목사 설교를 녹음

우리교회 전도활동의 새 기원—

당회는 연초에 우리교회가 힘쓰고 있는 국내의 복음전도사업의 확장과 효과적인 전도방법의 하나로 김창인 목사의 설교집을 발행하기로 하고 아울러 매주일 설교를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기로 결정하였었다.

이를 위하여 총현출판위원회(위원장 송순일 장로)를 구성하고 실무자인 녹음분과가 제작과 보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서둘러왔다. 그간 외국으로부터 녹음복사를 위한 기계를 수입해 와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로이 해결되어 드디어 지난 8월 7일부터 보급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강단에서 외치는 은혜의 말씀은 한번 듣고 지나면 다시 들을 수 없지만 이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다시 은혜의 말씀을 들려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문서(전도지)를 통한 복음전도의 외 역성(녹음설교 카세트테이프)을 통한 복음전도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설교녹음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녹음 카세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설교녹음전도 현금을 하면 된다. 즉 60분짜리(설교만 녹음됨)는 1개에 600원 이상, 90분짜리(예배순서전체 녹음됨)는 1개에 900원 이상을 현금하면 된다.

현금하는 방법은 설교녹음전도 신청서(소정양식)를 교회 사무실의 취급자에게 내면 설교녹음전도현금 봉투를 교부받게 된다. 이 봉투에 설교녹음전도현금을 넣어 현금하면 설교녹음 카세트가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우송되며 우송료는 별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이나 외국에서 찾아 온 성도들에게는 편의상 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을 받고 설교녹음 카세트를 보급하게 된다.

아울러 총현출판위원회에서는 이를 보다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새로이 개척교회 설립

—여전도회에서 구치소도 방문—

군인전도와 개척교회 설립에 특별히 힘을 기울여 온 우리교회 여전도회(회장 김봉재 권사)는 또 다시 충청북도 단양군 매곡면 평백리에 개척교회를 설립하였다. 새로이 설립된 이 개척교회를 위해 현재 40세 미만의 종신 출입자로 사명감있는 교역자를 물색중에 있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여전도회는 또한 지난 6월부터 170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영동포 구치소 여자감방을 매일 새벽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7월 23일에도 서기 이정에 집사를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이 성경과 찬송가 외에도 간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방문하여 예배도 드리고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정기성 목사의 인도로 드린 이날 예배에는 97명의 기절수·미결수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으며 예배 후에는 성경퀴즈대회를 열어 성경 말씀을 입도록 권장하였다. 이처럼 앞으로는 감방에 있는 이들을 위한 구치소전도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전도회원 뿐만이 아니라 여성도라면 누구든지 이같은 일에 협력하여 주도록 부탁하고 있다.

산업전도회 의료전도

—각 기업 직장순회예배와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도—

산업전도회(회장 김종서 장로)는 지난 7월 부평에 있는 한독회사와 상진기업에서 의료전도봉사를 통한 전도활동을 하였다. 산부인과 의사인 김창원 집사가 의료전도를 담당하여 봉사하였는데 산업전도회는 앞으로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의료전도대를 편성하여 각 기업체를 순회하며 의료전도를 보다 조직적으로 폭넓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산업전도회에는 파부와·치과·산부인과 의사는 있으나 약사와 간호원이 없어 이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산업전도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전도대가 구성되는 대로 오는 9월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산업전도회 회원의 기업을 순회하며 의료전도 봉사와 함께 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산업전도회는 지난 7월 6일로 설립된 지 만 1년이 되었으며 현재 80여명의 회원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은 35개업체에 달하고 있다. 그간 이들 회원들을 위한 직장 순회예배를 드리고 또 직장예배를 위한 지도와 또 회원자질향상을 위한 훈련등을 해왔다.

모든 유인물

인쇄물 원고검토

지난 7월 정기당회에서는 앞으로 교회내의 모든 유인물·인쇄물을 발행함에 있어 질서유지와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당회 산하 각기관과 주일학교 각부는 유인물·인쇄물 발행에 앞서 원고내용·규격·종이종류등을 반드시 총현출판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가결하였다.

또 총현출판위원회는 당회 산하 각기관에서 발행되는 유인물·인쇄물에 대하여 그 원고내용을 일차적으로 해당기관의 기관장과 지도교역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실무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뜻을 충분히 전달하여 교회가 목적하는 바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첫 지휘자반주자 교육

교회 성가부(부장 임광식 장로)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교회 각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를 위한 교육을 지난 8월 16일 오후 우리교회에서 실시하였다.

모두 21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는 정상우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였다. 성가부는 또한 이번 지휘자·반주자 교육과 같은 자질향상의 기회를 가능한 한 자주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가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제일·제이·여성 등 각 성가대가 여름에는 성가부 수양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토막소식

- *...제 5회 장로수양회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운수리수양관에서 29명의 시무장로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듯 하게 하자」는 주제로 강사는 정상우 목사.
- *...미국의 홍정일 장로(도미한 홍수정 장로 영식)가 7월 17일 귀국 본교회를 방문했다. 본교회에서 성장하여 많은 활동을 하다가 10년 전 도미, 지난 봄에 오렌지 한인교회(이진태 목사 시무)에서 장로장립하였다.
- *...8월 교인전체 철야기도회가 12일(금) 오후 10시부터 유년부실에서 있었다.
- *...본교회는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제민을 위해 교우들이 모은 수제외금 50만원과 의류 260점을 중앙일보사를 통해 전달했다.
- *...교회 운전기사 이진복 선생이 8월 2일자로 사임하고 후임 장운길 선생이 채용되었다.
- *...구역권찰회는 현재 92개 구역을 내년에는 150개 구역으로 늘리고 시무권찰수도 70여명 증원할 계획이다.
- *...교육위원회는 당회의 인준을 받아 교육위원장 교과분과 정겨성 목사를 윤형철 전도사로, 윤영분과 김정일 집사를 김종석 선생으로 각각 교체하였다.
- *...교육위원회는 주일학교 각부의 설년도 사업계획을 9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 *...전도위원회는 이승근(고등부 지도) 전도사와 김영휘(유년부 지도) 전도사를 국제선교협력기구(회장 후암교회 조동진목사)가 주최하는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도사미에서 열리고 있다.
- *...전도위원회는 농어촌전도대 파송지역인 가산제일교회를 화정교회로 변경하였다.
- *...제 1회 제이성가대 수양회와 제 2회 여성성가대 수양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명여대 수양관에서 있었다.
- *...제일성가대 수양회가 8월 18일

- 부터 20일까지 우리 교회와 태능 푸른동산에서 열렸다. 강사는 정상우 목사.
- *...남전도회 야외예배와 회원 친교모임이 지난 8월 15일 상명여대 수양관에서 있었다.
- *...산업전도회는 매월 첫 주 지난 월요일 저녁에 모이던 정기 월례회 일자를 7월부터 매월 둘째 주일 오후 3시부터 유년부실에서 모이게 변경 실시하고 있다.
- *...권사회는 매월 월야기도회를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유년부실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특별히 기도원 공사를 위해 기도하며 아울러 성전건축과 나라와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 *...세신자부(장년) 7월 수료자는 정영태·이경심·한명진·박원양·박종렬·최중문·김효순·허옥순 등 모두 8명이다.
- *...유년부는 심·농촌·소년월·교아원 등의 어린이에게 전도편지보내기운동을 유년부 전체 어린이가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였다.
- *...초등부는 7월 3일 어린이의 글과 소식을 담은 「중현어린이」란 회지를 발행하였다.
- *...중등부는 7월 3일 실시한 2학기 성경교사에서 1-1반과 2-5반을 우수반으로 뽑았다.

- *...중등부 8월 21일 장충공원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 *...고등부는 7월 10일부터 오후 집회 시간을 중전의 오후 5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 *...고등부는 9월 17일 선교음악회를 우리교회에서 연다.
- *...고등부 특별회가 실시하는 성경통신과 성경읽기에 7월에는 천해정과 이윤화가 1등하였다.
- *...산업전도교육부는 7월 10일 개교 1주년 기념으로 「산물」이라는 회지를 창간하였다.
- *...산업전도교육부 임시총회가 7월 1일 열려 임원을 보설했다.
- *...산업전도교육부는 8월 14일 전도훈련을 하고 7월 10일에는 조장훈전도 하였다.
- *...대학부의 성가대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 *...대학부 특별회는 특별회 회지 「여수분」 제 7호를 7월 10일 발행하였다.
- *...총현교회 청년부와 수도노회 청장년특별회 합동부흥회가 10월 말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다.
- *...수도노회남전도회연합회 순회예배가 9월 18일 저녁에 있다.
- *...대학부의 NMC노회전도단(지휘: 유국현 선생)이 부산 복음병원들을 순회하고 돌아왔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 8. 7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구	분	남	여	계
예	주 일	180	345	525	예	주 일	92,610	211,050	188,810
		366	855	1,221			43,630	2,271,545	430,400
		308	572	880			239,000	66,000	7,000
매	주 일	73	189	262	매	주 일	2,976,793	12,000	2,660
		212	588	800			12,470	22,856	17,550
		97	280	383			17,740	24,820	56,639
주	세 일	26	14	40	주	세 일	6,693,573		
		26	56	82					
		58	55	113					
일	아	65	82	147	일	아			
		122	112	234					
		126	139	265					
학	초	149	125	274	학	초			
		145	162	308					
		62	80	142					
교	대	55	70	125	교	대			
		29	246	275					
		22	59	81					
교	산	10	40	50	교	산			
		2,131	3,881	6,012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 교인총수 | 세 대 교 인 | 유 세 | 학 습 | 회 일
2,678 | 2,978/3,668 | 1,368/2,504 | 302/237 | 227/337 | 481/590

신앙 없이는 올 곳이 못되는 나라, 미국

우리 중현교회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앞으로도 이민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미국생활을 하시다 잠시 귀국하신 임현덕 장로는 단호히 이야기한다. 신앙 없이 방황하러던 오지 말라고, 미국은 인간적으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란단다.

(문) 그곳의 실정과 신앙 형편을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시카고인데 5만여 교포 중 한인교회는 약 40 군데 되지요. 우리 교포사회에서는 교인수 150명 정도면 중류이고 30명 정도 모이면 하류로 집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르지요. 중현교회에서 배운 신앙 가치고서는 적용해 나가기가 무척 힘든 곳이 미국이지요. 우선 성수주일은 생각도 못해요. '시간은 황금이다'는 금언이 현실로 압박해 오는 곳이 바로 미국 사회거든요. 두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목적하기보다는 그저 서로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런 경향 때문에 잘 믿는 성도들도 성경·찬송을 지참하지 않고 몸만 나오면 교회에서 비치해 둔 성경·찬송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니 예배에 생명이 없지요. 제 성격상 그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온 교인들이 각자 자기 성경·찬송 갖고 다니기 운동을 벌여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요. 한국서 얻은 신앙 밑천이 자꾸 떨어지지만 하는거죠.

(문) 그러면 교도들의 생활상을 잠깐 소개하여 주실까요.

—식당, 식당점 등을 경영하는 사람, 공장에 나가 노동력을 파는 사람,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 지식층으로선 의사나 간호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라이선스(licence)가 없으면 고전을 면치 못하죠. 누구라고 대견 알겠지만 우리 중현의 식구들 중에도 손이 부르도록 공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기왕 오실려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혀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부부간이라도 어느 한쪽이 늘고 베풀을 없기 때문에 직장문제로 금실이 깨져 가정파탄을 일으킨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 모교회와 관련하여 이러 저런 하시고픈 일이 많으실텐데요.

—제가 중현교회 출신 장로로서 몸은 미국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모교회와 협력하여 미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해외에 마을대로 송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현의 식구들 힘으로 해외 선교를 송금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있어요. 또 중현교회 지교회를 설립하려고 그간 애를 많이 썼어요. 교역자 초빙을 위해서 등본서주했는데 바다를 건너오는 문제여서 못

본교회 집사·장로서 주일학교와 남전도회에서 크게 봉사하다가 미국에 이주한 임현덕 장로가 부인과 함께 일시 귀국,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모교회와 고국을 찾아 그간의 신앙생활등 회포를 풀었다. 그는 미국 현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물론 본교회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해외선교를 측면지원하는 등 직할 없는 평신도선교사의 역할까지 해왔다.

6월 12일 예배후, 편집실에서는 임현덕 장로를 맞아 월간중현 간사 오태웅 집사와의 대담으로 들은 내용을 여기 게재한다.



◇ 해외의 중현식구들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임현덕 장로.

대로 잘 안되더군요. 지금 저는 지창욱 장로(우리교회 집사로 일하다 미국가서 장로장립—편집자 붙임)와 함께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뉴우요크, 워싱턴, 달리 캐나다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선교망을 형성해서 역량껏 일해 보려 합니다. 이에는 모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크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 우리 월간중현이 국내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미국에 온 중현의 식구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모교회의 사업과 활동,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있고, 향수를 달래주지요. 교포들에게 건드용으로도 더러 사용되지요. 바라고 싶다면 해외의 중현식구들에게 좀더 관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퍼로우나 즐거우나 늘 가슴에 등쳐있는 것이 고향 모교회에 대한 그리움인데 그들의 이런 심정을 심분 이해해서 해의난 같은 것을 상설하여 해외 교우들과 영육간에 교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장로들을 위해서도 특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 끝으로 장로님의 개인적 비전을 좀 부탁해요.

—한국의 농어촌 교회를 돕고 싶어요. 지금 5교회 정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해요. 총회신학대학 김희보 학장님을 통해 12교회에 12명을 도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리/오태웅 집사>

주소 : Mr. Hyun Duk Yim(임현덕 장로)

5923 N. Artesian Chicago Ill 60645 U.S.A.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료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헌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매마른 나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 서울특별시 중구 중무로 5가 36 (전) 27—9937·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1977년도 추계성례식 안내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므로 학습·세례·입교 등의 성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문답일시/10월 13일(목) 오전 10시~오후 9시

10월 14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세례식/10월 14일(금) 오후 7시 □ 성찬식/10월 16일(주일) 1·2·3·4부 예배시

1977년 8월 21일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표지설명

「교육은 0세로부터!」란 표어가 어느새 이즈음엔 청소년교육 못지않게 유치부에서 더 낮춰 유아교육의 중요성·시급성이 거론된다. 대개 교육심리학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형성을 5세 이전에 이뤄진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교회가 3년 전부터 영아부 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은 어찌보면 하나의 작은 자랑일 수도 있다. 저 기도하는 표정, 맑게 모은 작으마한 손! 볼수록 귀엽기만 하다.

월간 충현

8월호 통권 제44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8월 21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송 순 일

주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중무로 5가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제24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개교가 초동부는 7월 25~28일까지 본교회당에서 「배우고 따를 성경말씀」이란 주제아래 원우연목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성경과 전승등을 많이 배웠다.



◇ 칠군빈대조천기도회가 지난 7월14일 시내 엠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날의 메시지는 「난국에 처한 성도의 자세」란 제목으로 담회장 김정인목사가 담당하였다.



◇ 유년부 제24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는 역시 「배우고 따를 성경말씀」이란 주제아래 8월1~4일까지 본교회당에서 원우연목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성경공부를 도려와 참고할 줄 아는 시간을 가졌다.



◇ 제15회 하기수양을 맞이한 중동부는 7월26~29일까지 총회신학대학에서 주강사 정상우목사를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축제.



◇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 올해의 하기전도대는 공식적인 것으로 9곳에 50여명이 파송되었다. 사진은 파송지로 떠나기전 지도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 하기전도대 중 제2대는 8월8~13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옥동탄광지역에 파송받았다. 한 대원은 석탄가루가 쌓여있는 탄더미를 헤치며 「형제여, 당신의 죄는 이탄보다 더 검습니다」하며 접근.....



어느 소녀의 기도 (중등부 하계수양회에서)

일상생활의 기도

오오 하나님 !

우리는 모든것을 당신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신은 권능의 손을 펴시사 오묘한 섭리를 행하십니다.

당신은 그 손을 벌리시사 모든 산자와 살아있는자의 소망을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팔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당신은 우리들의 신앙과 신뢰를 굳게하사 우리로 당신에게 굳게 맺어 주십니다.

당신이 우리들로부터 손을 떼시고,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직는 낚임 뿐 그안에 더 많은 은혜를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그것을 열기 위하여 그손을 닫으시며, 당신이 만드신 모든 은혜로써 채워주시기를 아웁니다. 아멘.